

가천만세! 17년도 인성캠프

17년도 첫 캠프 - 인성캠프

17년 글로벌경영학트랙 포함 몇 개의 단과대학, 과 학생들이 3월 2,3,4일 총 3일에 걸쳐 원주 오크밸리로 여정을 떠났다. 이번 행사는 신입생들에게 첫 캠프라는 점. 즉, 이제 고등학생이 아닌 성인으로서, 항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학생 인성능력증진에 기여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여러 강의들과 리더쉽 교육, 레크레이션 까지 준비 되어있고, 올 해는 힙합가수 슈퍼비(Superbee), 면도(Myundo)가 직접 방문하여 축하공연도 펼쳤다.



▲ 공연중인 면도(Myundo)와 슈퍼비(Superbee)

이렇듯 웃음 가득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가천대학교 학생들은 큰 상금이 걸려있는 ‘학교홍보 영상 만들기’, ‘과 홍보 영상 만들기’ 프로그램도 짹짹이 진행하였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연기들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많은 팀들이 치열히 겨루었고, 우리 글로벌경영학트랙에서는 8개의 팀 중 6개의 팀이 수상하는 등의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학생들은 ‘가천만세’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주도문화를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주스티커를 몸에 부착하였다. 학생들의 올바른 주도문화 만들기에 앞장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 주도문화 개선을 위한 절주스티커

17년도 첫 캠프는 아무 탈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입생들도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다 하였다. 힘들 수도, 피곤 할 수도 있었지만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배움으로서 값진 추억들을 얻을 수 있었다.

김동석 편집장

r_esun_z@naver.com

글로벌경영학트랙의 MT 이야기

악천후 속 에서도 마냥 즐겁던 글로벌경영학트랙의 MT



▲연합애틀 기념촬영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2박 3일 간 가평 더 리버 리조트에서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트랙의 연합애틀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약 120명의 학생이 참석하였으며 한 조당 8 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어 총 15 개의 조로 나뉘었다. 학생들은 동기들과 선배들, 후배들과 뜻 깊은 추억을 쌓고 놀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연합애틀에 참석했다고 한다.

첫째 날, 각 방배정이 끝난 후 곧 바로 요리경연대회가 시작되었다. 각 조는 최고의 맛과 비주얼을 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요리 경연 심사위원으로 펜으로 학생회장, 부회장, 펜션 사장님이 참가했다. 3 위 내로 수상한 조는 사장님께서 특별히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해 주셨다.

경연 후 각 조는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둘러 앉아 담소를 나누는 것이 처음

이라 초반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하지만 잠시일 뿐, 서로를 알아갈 때마다 방에서 나는 이야기 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일부 학생들은 잠을 잤지만 체력이 좋은 일부 학생들은 다른 방에 가 놀기도 했다. 학생들은 기존에 알았던 동기나 선후배들과는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처음 보는 학우들과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놀았다고 한다.

둘째 날 오후 3시부터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레크레이션'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때문에 학생회에서도 모두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레크레이션의 시작은 글로벌경영학트랙 15학번 한중윤 학생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한중윤 학생은 외국에 나갔던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17학번 신입생 이었는데, 집중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다음은, 야외에서 레크레이션 일정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과 시설 상의 문제로 원활한 진행이 이어지지 못하였고 일정은 중단되었다. 학생들은 각 방으로 돌아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글로벌경영학트랙 학생회장 전다운(24)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장소가 협소했으며 추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유감이라며 학생들과 마음을 함께했다.

이어 저녁에 바베큐 파티가 진행되었다.



▲고기에 집중하는 16학번 조현명

하지만 이번 역시 날씨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함이 컸다. 학생들은 비로 인해 천막 밖에서 고기를 구울 수 없었으며 짐을 옮기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질 않았다. 17학번 김모군은 ‘다 같이 고기도 먹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비가와도 재미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역시 저녁식사 후 방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전날 보다 다른 방에서 다른 조원들과도 함께 노는 학생 수가 더 늘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밤새 불이 켜져 있는 방에서는 학생들의 웃고 떠들고 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이번 연합 엠티의 마지막 밤도 지나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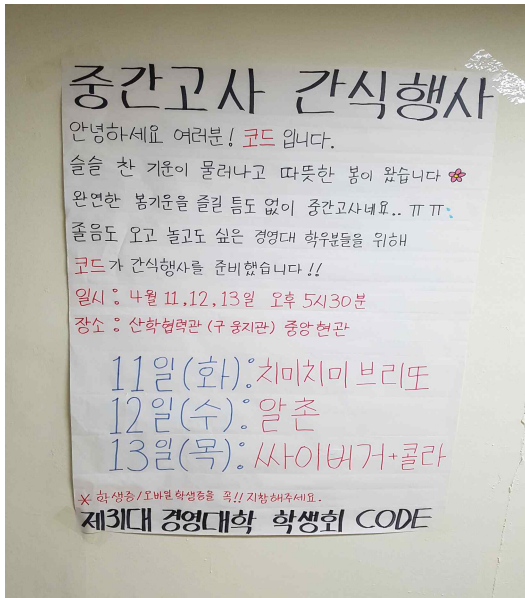
마지막 날 귀갓길에 오르는 학생들의 표정은 밝았으며 시간가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첫 날 그 어색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처음에는 서먹서먹해 하던 학생들끼리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다. 한 달 전에 실시된 인성캠프에서 프로그램을 잘 이수한 덕인지 학생들은 한층 더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며,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귀가하는 길에 17학번 윤모군은 ‘엠티는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배들도 잘해주시고 동기들과도 잘 놀아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면서 다음에 있을 엠티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 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백연 기자

zzangcby@naver.com

몸도 마음도 푸근한 간식행사

단과대학 학생회 - CODE - 첫 간식행사!!



▲단과 학생회에서 준비한 3일 동안의 간식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경영대학 학생회 CODE에서 간식행사를 준비했다. 옹지관(산학협력관) 1층 정문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간식을 지급하는 인기 많은 행사였다. 경영대 학생회 임원들은 이 3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간식행사 첫날에는 '치미치미 브리또'를 지급하였는데 경영대학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여기서 잠깐! 브리또는 토르티야에 콩과 고기 등을 넣어 만든 멕시코 요리이다. 토르티야에 콩과 고기를 얹어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구운 후 소스를 발라

먹는 멕시코의 전통요리이다. 토르티야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 대부분 찌거나 살짝 구운 것을 사용한다. 고기는 쇠고기 또는 닭고기를 이용하며, 콩은 다양한 종류를 준비한다. 속이 짭찬 브리또는 맛도 좋아서 여러 학생들이 더 먹고 싶어 했다.

둘째 날엔 알촌을 지급했다. '알촌'은 알밥과 유사한 일명 '킵밥' 인데 한 끼 식사용으로 적합했다. 이 날에 알촌을 먹은 학생들은 저녁을 따로 먹지 않을 정도 양이었다. 마지막 날에는 맘스터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인 싸이버거와 콜라를 지급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여서 그런지 지급을 하기도 전에 100명 넘게 줄을 서서 못 먹은 학생들도 많았다.

간식행사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기말고사 기간에도 하면 좋겠다는 학생도 있고, 3일은 너무 기간이 짧았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리고 수업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대를 바꿔가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사소하지만 잦은 행사들은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이 더 큰 인재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지원군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김기현 기자

rlgus2738@naver.com

17학번의 첫 걸음, 개강총회

르게 과대표 / 부과대표

개강총회로 학기의 시작을 알리다!

2017년 3월 10일 금요일에 개강총회가 개최되었다. 4시 50분 교수님들이 마련해주신 뷔페가 준비되었고, 글로벌경영학트랙의 학우들은 교육대학원 교직원 식당으로 모여 식사를 하였다. 또한, 글로벌경영학트랙의 많은 교수님들이 한 해 글로벌경영학트랙의 방향과 목표 및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

식사가 끝난 후 6시 가천관 701호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 개강총회에서는 학생회 소개, 단과대학학생회 - CODE 소개, 학군단 소개, 글로벌경영학트랙의 TIMES, MAD, 베이글, 비글 4개의 소학회 소개가 진행되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순서는 다름 아닌 17학번 과대표 선출이었다. 올 해는 작년과 다

제도가 아닌, 남자과대표 / 여자과대표 제도로 선출이 진행되었다. 남자 과대표의 후보로는 17학번 이재엽(21), 박준(20) 학생이 출마하였고, 여자 과대표의 후보로는 17학번 윤예람(20) 학생이 단선으로 출마하였다. 남자과대는 이재엽 학생이, 단독 후보로 출마한 윤예람 학생은 과반 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며 과대표로 당선되었다. 개강 총회 이후 흔히들 말하는 ‘뒷풀이’인 개강파티가 진행되었다. 시간관계상, 개표과정을 지켜보지 못하고 학생회 임원들을 제외한 신입생들은 개강파티 장소로 자리를 옮겨야 했는데, Facebook Live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개표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신입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친목 도모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진행되는 이 자리는 전대 학생회장 김태형(23)이 현 학생회장에 축하 케이크를 건내는 등 많은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신나고 유쾌한 개강파티 !

다음으로는 17학년도 1학년 남자과대 여자과대 당선자들의 인터뷰를 준비했

다.

Q: 2017학년도 1학년 과대로 선출되었는데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17학년도 남자 과대로 선출된 이재엽 입니다. 아직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감은 잘 나지 않지만, 저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글로벌경영학트랙 17학번 동기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저는 과 행사를 같이 참여하는 것이 동기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유대감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를 목표로 과대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회 선배님들과, 17학번 동기 학생회 학우들과 함께 힘써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학생활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재엽,21)

A: 안녕하세요. 2017년도 과대로 선출된 윤예람 입니다. 제가 개강총회 날에 "즐길 땐 즐기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인성까지 고루 갖춘 학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솔선수범하고 저희 과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예람,20)

17학번 과대로 선출된 두 학생의 인터뷰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바람처럼 글로벌경영학트랙의 모든 학우들이 과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이다. 2017학년도의 시작. 개강총회로 글로벌경영학트랙의 17학번 학생들은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

이수빈 기자

dltnqls442@naver.com